(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 54 (2024. 4.), 269-291
ISSN 1226-5926 (print), ISSN 2586-2480 (online)
DOI: https://doi.org/10.28977/jbtr.2024.4.54.269
https://dbpiaone.com/bskorea/index.do

JBTR
JOURNAL OF BIBLICAL TEXT RESEARCH

<번역 논문>

〈9월 성경〉과 이전 역본들

— 루터의 신약 번역은 이전 독일어 역본과 어떻게 다른가? —

유언 캐머런(Euan Cameron)*
유은걸 번역**

1. 서론

마틴 루터의 1522년 신약성경 번역 500주년을 맞이하여 *The Bible Translator*에 투고하도록 요청받은 것은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다. 성경 번역자로서 루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1522년 역본이 성서학이나 종교개혁사, 성경과 그 독자층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를 놓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한편 1522년의 신약성경의 번역문은 변함없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루터의 번역은 그의 생전에도 여러 판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심지어 그의 비서였던 게오르크 뢰러(G. Rörer)가 덧붙였던 난하주도 결국은 마지막 본문에 반영되었다.[1] 그러나 루터의 신약성경과 1534년 처음으로 발간된 성경전서가 첫 번째 독일어 성경 번역인 것은 결코 아니다. 최초의 독일어 완역은 멘텔린 출판사가 1466년 내놓은 것이고, 이는 구텐베르크의 라틴어 역본[2]보

* University of Oxford에서 D.Phil을 받음. 현재 Unio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ecameron@uts.columbia.edu. Euan Cameron, "The September Testament and Its Predecessors: How Was Luther's New Testament Translation Different from Previous German Versions?", *The Bible Translator* 73:3 (2022), 335-353.

** Ruprecht - Karls - Univ.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교수. jakob38@daum.net.

1) E. Cameron, e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1450-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234.

2) *Biblia* (Strasbourg: Johann Mentelin, 1466), https://www.digitale-sammlungen.de/ en/view/bsb0

다 불과 10년 뒤의 것이었다. 1520년 이전에 고지 독일어로 번역된 14개의 역본이 존재했던 걸로 추정된다. 게다가 저지 독일어 역본도 4개가 더 있었다.[3]

그러므로 논의에 앞서 우리가 먼저 제기해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루터의 번역은 독특한 것인가? 그 특징 중 어떤 것이 그토록 특별한 영향을 후대에 미쳤는가? 성경 번역을 수년간 축적된 루터의 영적, 지적 유산의 기록으로 간주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더욱이 여러 연구에서 훌륭한 분석을 내놓았다.[4]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나, 루터역의 발간을 기념하여 좀 더 큰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글은 1522년 <9월 성경>과 그 이전 번역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그 이전 번역과의 비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루터역과 1522년 이전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독일어 역본, 곧 안톤 코베르거(A. Koberger)[5]가 뉘렌베르크에서 1483년에 번역한 역본과의 비교가 그것이다.[6] 이 번역은 일반적으로 멘텔린 출판사에서 나온 것보다 좀 더 매끄럽고 관용어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루터의 번역본과 비교하기에 좋다. 둘째, 우리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및 라틴어 신약성경[7] 2판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루터는 1519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본문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그리스어와 라틴어 대조본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더욱이 에라스무스는 1519년 판본에서 불가타 역본에 여러 중요한 변경을 시도했는데, 그의 라틴어 번역은 1516년의 초판을 상당히 충실하게 따랐던 바 있다. 루터의 독일어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를 비교하면, 비록 둘 다 번역이지만 독일의 종교개혁가가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의 업적을 어떻게 활용했는

0036981.

3) E. Cameron, e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218.

4) M. Brecht, *Martin Luther,* vol. 2, J. L. Schaaf,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85-1993), 46-55; E. W. Gritsch, “Luther als Bible Translator”, D. K. McKim,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tin Lu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2-72; J. L. Flood, “Martin Luther’s Bible Translation in Its German and European Context”, R. Griffiths, ed., *The Bible in the Renaissance: Essays on Biblical Commentary and Translation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ldershot: Ashgate, 2001), 45-70.

5) 1483년 성경의 서지사항에서 역자를 “Koburger”라고 밝히는데, 통상 이 말은 ‘코부르크(Coburg)에서 유래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Koberger”라는 말은 이후 자료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가령 뉘렌베르크 성서백과사전(the Nuremberg Chronicle)의 안표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 *Biblia Germanica* (Nuremberg: Anton Koberger, 1483), https://archive.org/details/Coberger_Biblia-Germanica_1483/page/n2/mode/1up.

7) D. Erasmus, ed., *Novum Testamentum omne* (Basel: Johan Froben, 1519).

지 흥미로운 단서를 얻게 된다.

세 개의 신약성경 완역본을 비교하는 것은 이 짧은 기고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기로 한다. 루터의 요한복음 번역을 코베르거와 에라스무스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그가 제4복음서를 옮길 때 남긴 독특한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요한복음을 선택한 것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다. 루터는 1522년 역본 서문에서, 자신은 요한복음을 복음서 중 최고의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요한이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는 매우 적은 것을 기록하지만, 그분의 선포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기록한다. 반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많이, 그러나 그의 선포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훌륭하고 참된 단 하나의 복음서로서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 선호하고 더 높이 평가하기에 충분한 것이다.[8]

이러한 판단은, <9월 성경>에서 루터가 "신약성경의 참되고 가장 고상한 책들"이라고 규정한 것의 번역에 녹아 들어가 있다(*TBT* 본호에 실린 마틴 로이치[M. Leutzsch] 논문[9]의 그림 3을 참고하라).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책들은 요한복음, 요한1서, 바울의 편지(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베드로전서이다.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책들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10]이라고 불렀고, 이는 정확히 위의 것과 반대되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야고보서는 신자를 위한 그리스도 사건의 의미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1] 루터가 선호하는 책을 선별한 목록은 1534년의 성경전서에서는 생략되었고, 1537년 이래로 신약성경 판본에서 사라졌다.[12]

---

8) M. Luther, *Das Newe Testament Deutzsch* (Wittenberg: Melchior Lotter for Lucas Cranach and Christian Döring, 1522; Facsimile reprint: Berlin: Grote, 1883), sig. 4r 첫 문단; 번역은 J. Pelikan and H. T. Lehmann, eds.,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55 vol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Philadelphia: Fortress, 1955-1986), 35:362를 따름; [역주] signature는 이절지(folio) 3-4장을 모은 묶음을 가리킨다. 이절지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24)을 참조하라. signature에도 앞면(recto)과 뒷면(verso)을 구분한다.

9) [역주] M. Leutzsch, "The First Bible Translations into German Based on Erasmus's New Testament: Johannes Lang's and Martin Luther's Versions of the Gospel of Matthew", *The Bible Translator* 73:3 (2022), 354-375.

10) "Eyn rechte stroern Epistel."

11) M. Luther, *Das Newe Testament Deutzsch*, sig. 4r 첫 문단.

12) E. Cameron, e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229-230.

그러므로 1522년 역본에서 루터가 요한복음을 특별히 공들여 번역했을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번역보다 신학자 루터의 성향을 더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가 요한복음을 좋아한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다만 몹시 아쉬운 것은 예수의 종교적 대적자들이 요한복음 안에서 "유대인들"(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말이 아니라)로 처리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루터(그리고 그의 동시대인들)가 당시 유대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을 떠올리게 한다. 1523년 루터가 유대교에 대해서 썼던 상당히 우호적인 논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를 감안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논문에서 그가 해당 주제를 다룬 궁극적인 목적은 – 다른 크리스천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 유대교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다.[13]

루터의 요한복음 번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다른 이점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루터의 번역 중 가장 악명 높고 논란의 여지가 큰 부분을 다루지 않은 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1530년에 저작한 "번역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이 논란을 일으키는 번역을 변증할 필요를 느꼈다. 여기에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쓴 로마서 3:28에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 포함된다. 또 천사가 마리아를 κεχαριτωμένη라고 묘사한 누가복음 1:28에서, 이 단어를 전통적인 "은혜로 충만한" 대신 "우아한"(*holdselige*, gracious)으로 번역한 것도 이에 해당된다.[14] 루터의 요한복음 번역은 이전 역본과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고, 번역 자체만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루터의 성경 번역은 번역 준비 당시의 신학적 전망에 영향을 받았다. 1521-1522년 바트부르크에서 은신하던 기간 동안, 그는 칭의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가능한 한 정교하게 다듬는 일을 끝냈다. 이 작업은 루터가 루뱅의 신학자 자크 마쏭(J. Masson, "Jacobus Latomus", 1475-1544)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끝냈다고 할 수 있다.[15] 동시에 루터는 일상적인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의 신학적인 기본 메시지를 정립하였다.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번역과 신학이라는 두 사고의 과정은 서로에게 자양분을 제공했고 이는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

13) T. Kaufmann, *Luther's Jews: A Journey into Anti-Semitism,* L. Sharp and J. Noakes, tr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54-75.

14) E. Cameron,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e Annotated Luther 6* (Minneapolis: Fortress, 2017), 23-40.

15) M. Luther,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58 vols. plus indexes [many vols. subdivided] (Weimar: Böhlaus, 1883-1948), 8:36-128; J. Pelikan and H. T. Lehmann, eds.,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32:135-260.

2. 번역을 위한 대본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실이지만,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1519년 판을 번역 대본으로 사용하였다. 이 성경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Novum Instrumentum*이라는 제목에서 *Novum Testamentum*으로 수정된 것이다.[16] 외적 증거는 없지만 충분한 내적 증거(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를 토대로, 우리는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의존한 채 요한복음을 번역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은 후대 사본에 근거한 그리스어 본문을 제시한 것으로 우수한 본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19세기에 많은 고대 사본이 발견될 때까지 표준 본문(Textus Receptus)의 뼈대를 이룬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본문은 그리스어 원문에 라틴어 번역을 병기한 것이다. 이 1519년의 라틴어 번역본은 1516년의 번역보다 불가타역에서 확실히 더 멀어진 것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 달라진 정도는 요한복음의 첫 문장에서 발견된다. 에라스무스는 이를테면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를 *In principio erat sermo*("태초에 설교가 있었다")로 번역했다. 몇 군데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단어 선택을 따랐다.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와 라틴어 본문 외에, 불가타 역본 역시 루터에게는 배제할 수 없는 자료였을 것이다. 설령 그가 불가타의 단어 및 신학적 입장에 거리를 두고 싶었어도 그러했을 것이다. 루터는 (얼마나 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니콜라스 드 리라(Nicholas of Lyra)가 저술한 성경 주해(*Postills*)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책은 16세기 초 여러 권의 연구 성경으로 간행되어 있었기에 루터가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성경은 표준 해설(*Glossa Ordinaria*)과 니콜라스의 주해가 본문을 둘러싼 형태를 갖추고 있다. 니콜라스의 해설을 읽을 때, 불가타판 본문을 함께 읽게 된다고 볼 수 있다.[17]

우리가 언급한 성경 대본 외에, 루터가 이전 번역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는가? 본 논문의 후반부 대부분은 루터역이 그보다 앞선 역본 중 가장 자유로운(idiomatic) 번역인 코베르거 판과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논의하는 데 할애될 것이다. 물론 둘 사이에 유사점도 발견되나, 그것은 자동적으로 특정 단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병행 번역(parallel translation)이라는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문화를 전공한 미국인 언어학

16) D. Erasmus, ed., *Novum Testamentum omne*; M. Brecht, *Martin Luther*, 2:47; J. L. Flood, "Martin Luther's Bible Translation in Its German and European Context", 50-51.

17) *Textus Biblie*, *Textus Biblie cum glosa ordinaria: Nicolai de Lyra postilla, moralitatibus eiusdem, Pauli Burgensis additionibus, Matthie Thoring replicis*, 7 vols. (Basel: Petri and Froben, 1506-1508), https://digital.staatsbibliothek-berlin.de/suche?queryString=PPN789418835.

자 워렌 워시번 플로러(W. W. Florer, 1869-1958)는 한 세기 전 다음과 같이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 그의 1912년 주장에 따르면 루터역은 코베르거 본의 개정으로 봐도 좋을 만큼 루터가 이 역본을 많이 참조했다는 것이다.[18] 플로러는 두 역본을 철저하고 정교하게 비교하는 대조 연구를 토대로 이를 입증하려고 했으나, 이 연구를 마치지는 못했다.[19]

3. 형식과 병행 본문 자료

구텐베르크 이래로 큰 판형의 성경은 손으로 작성하던 이전 원고의 형태를 모방하여, 한 쪽 당 2단으로 인쇄되었다. (성경 본문을 가운데 두고 용어 풀이 및 촘촘한 주석으로 둘러싼 형식의 해설 성경은 이런 유행과 대비되는 일종의 예외였다). 코베르거의 독일어 성경은 이런 관례를 따라, 본문을 2단으로 배치하고 많은 약어를 좀 더 작은 활자로 덧붙였다. 본문에는 목판으로 찍은 여러 삽화를 넣었고, 성경 각 권에 제롬의 안내 해설을 수록하고 각 장에 요약을 배치했다(그림 1 참조).

루터는 몇 가지 점에서 전통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 첫째, 그의 본문은 1단으로 구성되었고 비교적 적당한 수준의 약어만 기재되었다(그림 2에서 코베르거 역본과 비교한 것을 보라). 루터는 자신의 저작을 인쇄본으로 내놓는 일에 사람들이 때때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한다면, 루터가 똑같이 1단 판형으로 돼 있던 독일어 신학 소책자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에 착안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루터는 그의 성경 번역에 단락 구분을 도입했다. 다만 절 구분은 없었다. 상테스 파그니노(S. Pagninus)가 이런 절 구분을 시도했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후, 로베르 에스티엔느(R. Estienne)가 1551년의 신약성경 절에 숫자를 붙여서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병행 본문을 만들어 냈다.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신약성경에 숫자로 절을 구분했기 때문에, 루터교 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20] 결국 루터는 원활한 읽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관된 단락 구분을 위하여 본문의 흐름을 자유롭게 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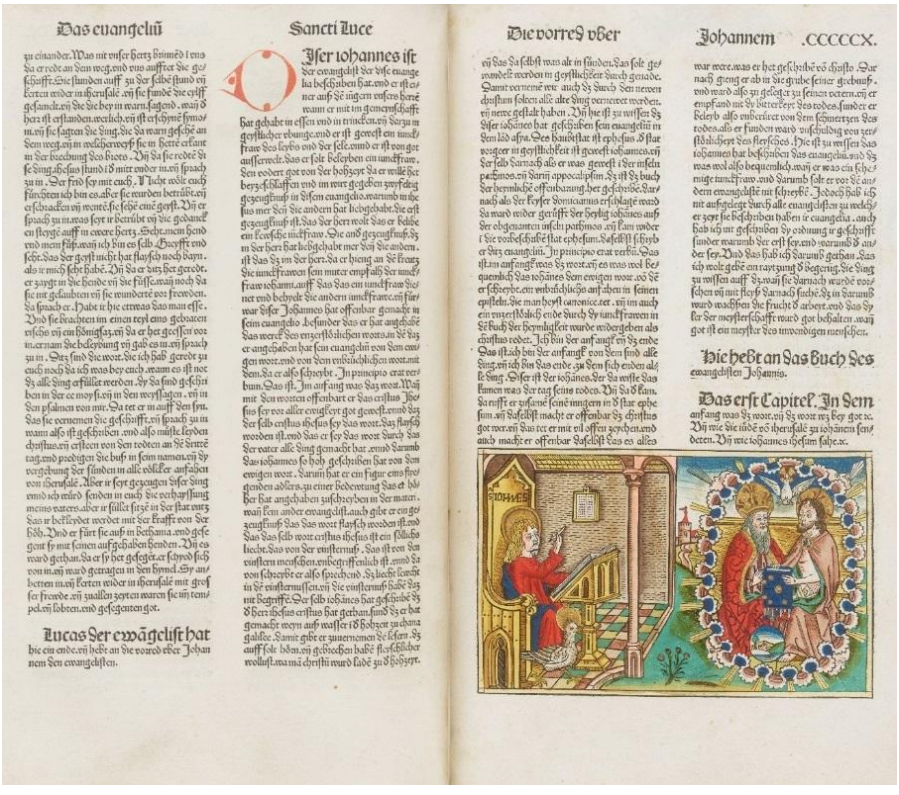
---

18) W. W. Florer, *Luther's Use of the Pre-Lutheran Versions of the Bible (Article 1)* (Ann Arbor: George Wahr, 1912).

19) 플로러(W. W. Florer)가 1912년 발표한 연구에 "1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후 출간 계획이 있었음을 시사하지만 더 이상 발표된 것은 없었다. 플로러의 논문은 미시간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다음을 참조하라. https://qoud.lib.umich.edu/b/bhlead/umich-bhl-851211?view=text.

20) E. Cameron, e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212-213, 236-237.

<그림 1> 코베르거 성경의 요한복음 첫 페이지. 요한복음에 대한 설명과 1장에 대한 요약. 바이마르 HAAB 도서관의 인쇄본 모음에서 가져옴. 서가번호 Inc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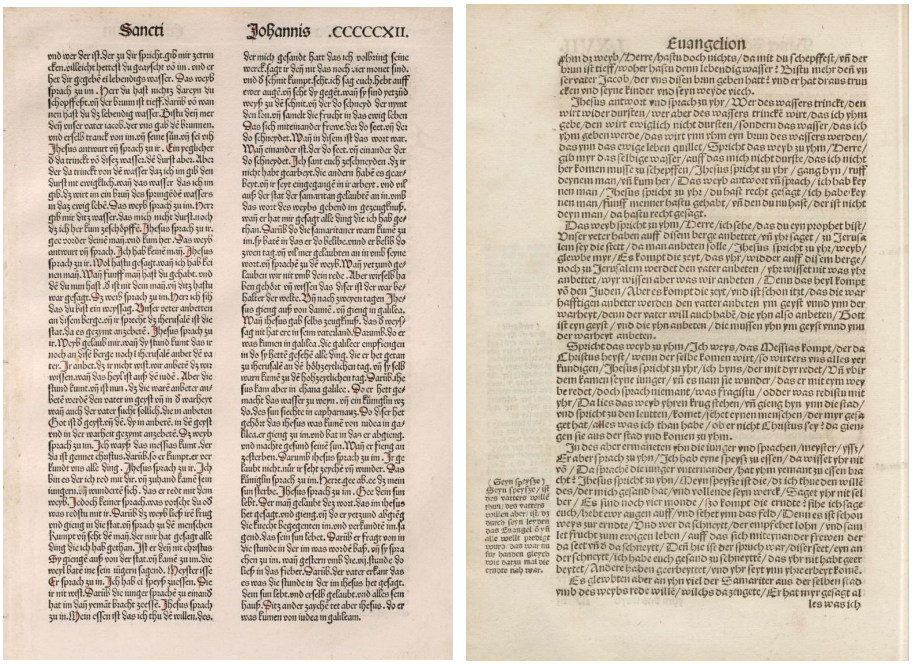


출처: https://haab-digital.klassik-stiftung.de/viewer/fullscreen/815718586/438-439/

그러나 루터 성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 보수적인 독자들에게는 불편한 것이겠지만 – 은 병행 본문에 사용된 자료의 질에 관한 것이었다. 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구약과 신약 및 각 책 앞에 수록된 안내 해설과, 초판 이래로 주요 본문의 여백에 덧붙인 해설이 중요했다. 루터는 제롬의 불가타역에 담긴 안내 해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해설은 라틴어 성경뿐만 아니라 불가타역의 영향을 받은 성경에는 일종의 표준과 같은 것이었다. 예를 들어 코베르거의 독일어 성경은 제롬이 파울리누스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으로 시작되었다.[21] 불가타역의 각 권 안내 대신 루터는 새로운 일련의 해설을 배치하였다. 신약성경 전체를 위한 해제와 로마서에 대한

21) *Biblia Germanica*, fols. 1r-4v.

<그림 2> 코베르거 성경의 요한복음 4장 본문(왼쪽)과 루터 번역(오른쪽). 보스턴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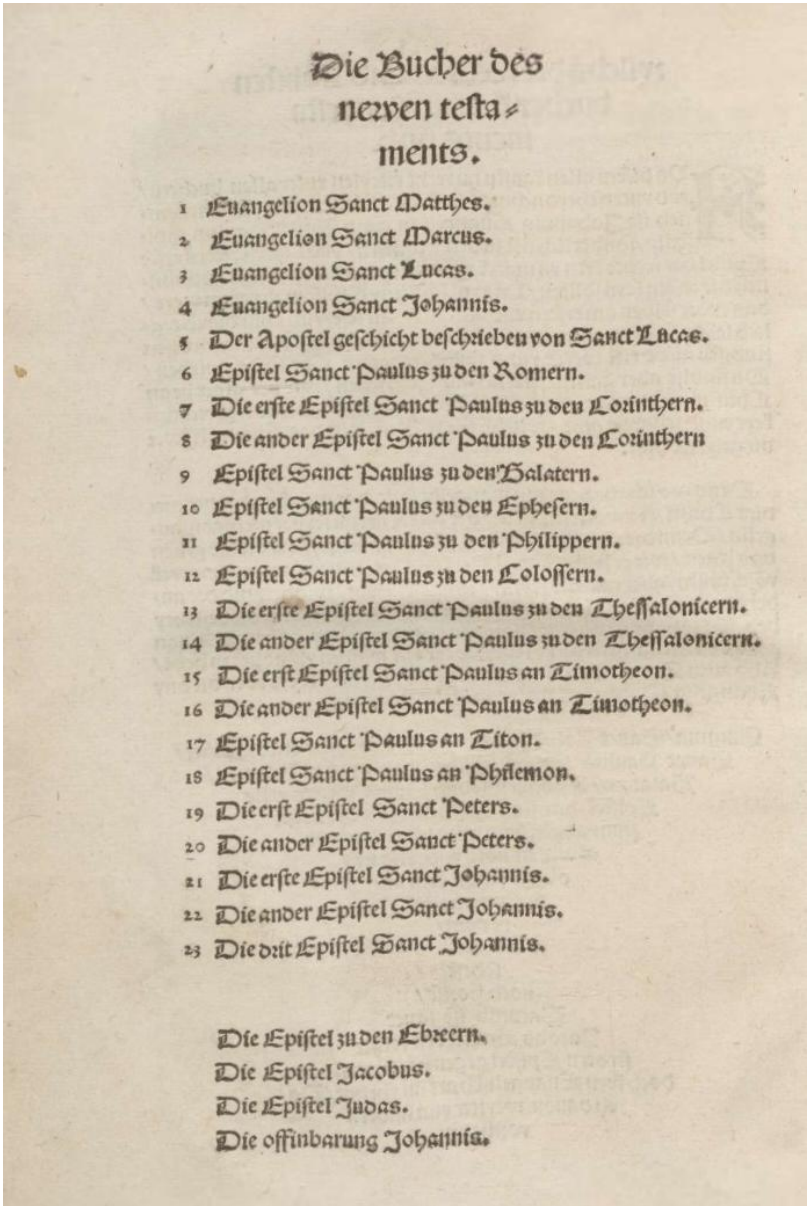
출처: https://digitalcommonwealth.org/book_viewer/commonwealth:bc386m88d (435번 이미지); 베를린 국립도서관 http://resolver.staatsbibliothek-berlin.de/SBB0001467E00000148

광범위한 안내가 그것이다(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권별로 안내 해설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어서 로마서보다 짧은 고린도전후서(고린도전서의 앞에 안내를 붙였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서신(묶어서 해설), 히브리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묶어서 해설), 그리고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 탐탁지 않다는 취지의 안내를 덧붙였다.[22]

1522년 판에서 이후 판본보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루터가 자신의 신약성경 번역에서 마지막 4권, 즉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을 다른 책들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공표했다는 점이다. 신약 목록에서(그림 3) 대부분의 책은 1부터 23까지 숫자를 붙였으나, 마지막 4권

22) 번역은 J. Pelikan and H. T. Lehmann, eds.,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35:357-99.

<그림 3> 루터 성경의 목차.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은 번호가 매겨지지 않은 채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다. 베를린 국립도서관 소재



Die Bucher des
newen testa-
ments.

1 Euangelion Sanct Matthes.
2 Euangelion Sanct Marcus.
3 Euangelion Sanct Lucas.
4 Euangelion Sanct Johannis.
5 Der Apostel geschicht beschrieben von Sanct Lucas.
6 Epistel Sanct Paulus zu den Romern.
7 Die erste Epistel Sanct Paulus zu den Corinthern.
8 Die ander Epistel Sanct Paulus zu den Corinthern
9 Epistel Sanct Paulus zu den Galatern.
10 Epistel Sanct Paulus zu den Ephesern.
11 Epistel Sanct Paulus zu den Philippern.
12 Epistel Sanct Paulus zu den Colossern.
13 Die erste Epistel Sanct Paulus zu den Thessalonicern.
14 Die ander Epistel Sanct Paulus zu den Thessalonicern.
15 Die erst Epistel Sanct Paulus an Timotheon.
16 Die ander Epistel Sanct Paulus an Timotheon.
17 Epistel Sanct Paulus an Titon.
18 Epistel Sanct Paulus an Philemon.
19 Die erst Epistel Sanct Peters.
20 Die ander Epistel Sanct Peters.
21 Die erste Epistel Sanct Johannis.
22 Die ander Epistel Sanct Johannis.
23 Die drit Epistel Sanct Johannis.

Die Epistel zu den Ebreern.
Die Epistel Jacobus.
Die Epistel Judas.
Die offinbarung Johannis.

출처: http://resolver.staatsbibliothek-berlin.de/SBB0001467E00000014

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책들은 다른 것에서 두 줄을 비운 후 그 아래 수록되었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들의 저자 앞에는 "성"(Saint)이라는 말을 붙였다. 마지막 4권은 "비정경 문헌"(antilegomena)으로 명명되었고, 그 저자들은 별다른 호칭 없이 이름만 밝혔다.[23]

1522년 번역의 마지막 특기할 만한 사항은 책장(leaf)에 번호를 매기는 일에 관한 것이다. 책장에는 사용된 이절지(folio)에 따라 번호를 매겼으나[24] 일관되지도 않고 연속적이지도 않았다. 성경의 서문이나 목차 등의 부분은 이절지 형식으로 인쇄하지 않았다. 마태복음-사도행전 부분은 이절지로 묶는 방식을 택했으나, 그다음 로마서의 안내 해설은 단면 인쇄 방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이절지 제본 방식은 로마서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가 유다서의 마지막까지 지속된다. 요한계시록의 안내 해설 및 본문 자체는 다시 단면으로 인쇄된다. 이절지 제본 방식을 택하지 않은 명백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의 눈에 로마서 안내 해설을 분명히 그의 신약성경 역본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라고 보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런 기이한 제본 형태에 대해서 누군가 나름의 설명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현재에도 막연한 추론에 불과하다.

루터의 여백에 덧붙인 주는 두 가지 기본적이지만 상이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 첫째 이 여백주는 동일한 주제나 이야기가 등장하는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을 가리키는 안내를 제공한다. 이 본문 사이를 연결하는 장절 정보는, 흔히 종이를 묶은 쪽(제본된 쪽)의 여백에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다. 종이의 다른 바깥쪽(매끈하게 자른 쪽)에는 신학적인 설명을 수록해 놓았다. 이런 해설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려는 루터의 의도에 어울리는 자리에 배치되었고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요한복음의 경우, 일부 신학적인 주해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앞날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그림 4를 보라).

본문	주해
요한복음 6:53-55[25]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	본 장은 빵과 포도주의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식사,

23) M. Luther, *Das Newe Testament Deutzsch*.

24) [역주] 중세에는 보통 전지 한 장(leaf)에 인쇄한 후 반으로 접어서 묶었다. 이 전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종이를 '이절지'(folio)라고 부른다. 이절지의 개수를 따라 번호를 매기고 책에서는 그 이절지의 번호에 앞(recto)과 뒤(verso)를 구분한다. 가령 아래에서 요 14:2-3을 박스 처리한 곳에서 fol. 76v.라고 하면 '76번째 이절지의 뒷면'을 뜻한다.

본문	주해
셨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이들은 영생을 가졌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 음식이고 내 피는 참 음료이다.[26]	곧 신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일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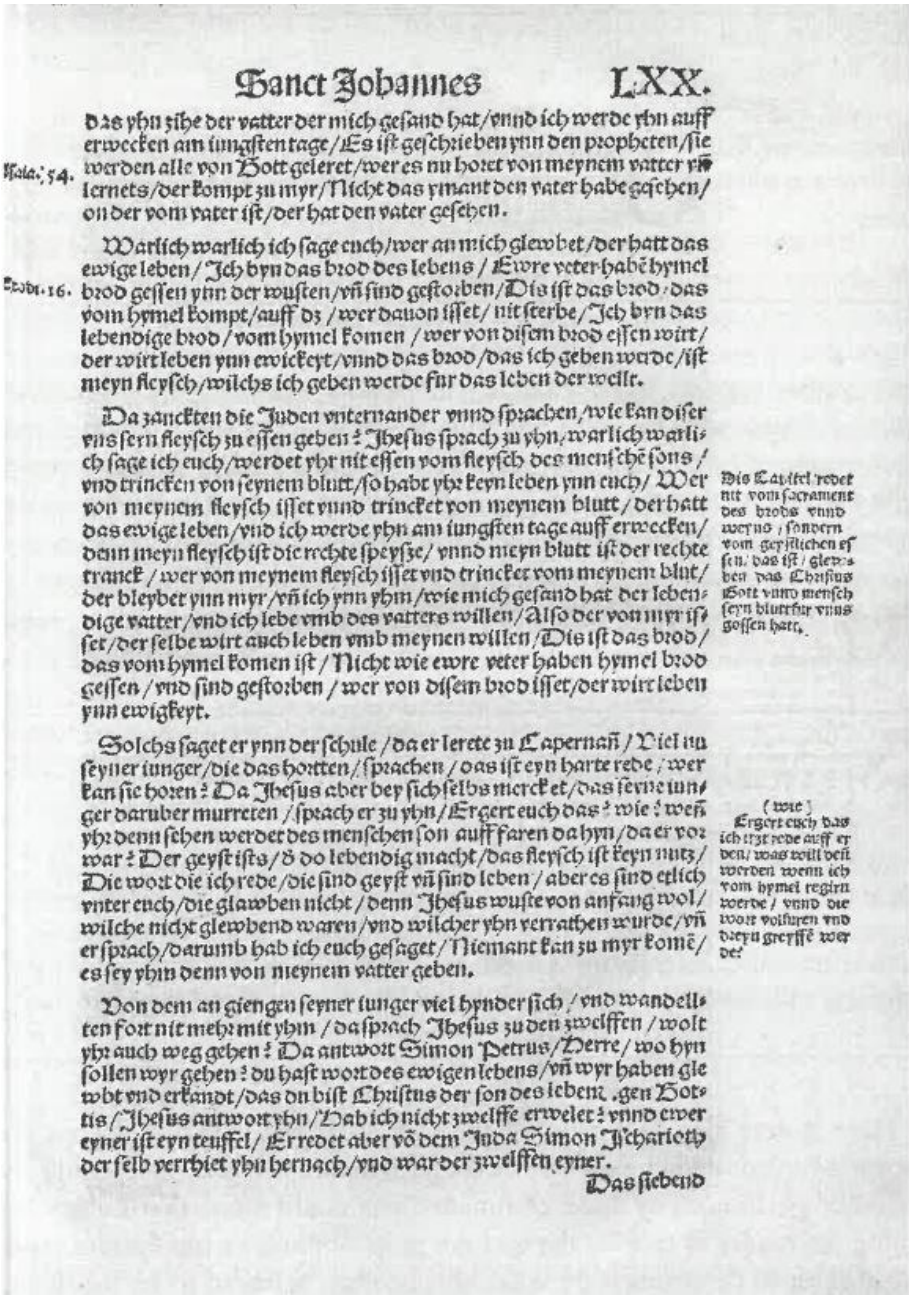
1522년 번역본에 등장하는 이 주해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논쟁이 어떤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520년대에 츠빙글리(U. Zwingli)와 외콜람파디우스(J. Oecolampadius)는, 요한복음 6장이 문자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통상 요한복음 6장은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지던 것이다.[27] 마부르크에서 츠빙글리는 루터에게 본 구절이 “그의 목을 꺾어버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28] 그러나 어떤 종교개혁자가 이 말씀이 성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기 훨씬 이전에, 루터는 이미 본 구절이 이 문제에 적절한 본문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본문	주해
요한복음 13:34[29]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 은혜는 행위 없이 의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복음은]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해 준다. 곧 바울도 그의 편지에서 말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왜 사랑이 새로운 계명인지를 말해 준다. 행위 없이 의롭다 인정받은 새로운 백성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여기에서 루터는 독자의 오해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의

25) M. Luther, *Das Newe Testament Deutzsch*, fol. 70r.
26) 본 사례의 성경 본문은 편의상 NRS(1989)에서 인용한 것이다.
27) A. N. Burnett, *Karlstadt and the Origins of the Eucharistic Controversy: A Study in the Circulation of Ide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91-95; A. N. Burnett, *Debating the Sacraments: Print and Authority in the Early Reform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179-187.
28) J. Pelikan and H. T. Lehmann, eds.,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38:26, 57, 64.
29) M. Luther, *Das Newe Testament Deutzsch*, fol. 76v.

<그림 4> 요한복음 6:53-55에 대한 루터의 여백주.
베를린 국립도서관 소재



Sanct Johannes LXX.

das yhn zihe der vatter der mich gesand hat/vnnd ich werde yhn auff erwecken am iungsten tage/Es ist geschrieben ynn den propheten/sie
Esaie. 54. werden alle von Gott geleret/wer es nu horet von meynem vatter vñ lernets/der kompt zu myr/Nicht das ymant den vater habe gesehen/ on der vom vater ist/der hat den vater gesehen.

Warlich warlich ich sage euch/wer an mich glewbet/der hatt das ewige leben/Ich byn das brod des lebens/Ewre veter habē hymel
Exod. 16. brod gessen ynn der wusten/vñ sind gestorben/Dis ist das brod/das vom hymel kompt/auff dz/wer dauon isset/nit sterbe/Ich byn das lebendige brod/vom hymel komen/wer von disem brod essen wirt/ der wirt leben ynn ewickeyt/vnnd das brod/das ich geben werde/ist meyn fleysch/welchs ich geben werde fur das leben der welt.

Da zanckten die Juden vntereinander vnnd sprachen/wie kan diser vns sein fleysch zu essen geben? Jhesus sprach zu yhn/warlich warlich sage ich euch/werdet yhr nit essen vom fleysch des menschē sons/ vnd trincken von seynem blutt/so habt yhr keyn leben ynn euch/Wer von meynem fleysch isset vnnd trincket von meynem blutt/der hatt das ewige leben/vnd ich werde yhn am iungsten tage auff erwecken/ denn meyn fleysch ist die rechte speyse/vnnd meyn blutt ist der rechte tranck/wer von meynem fleysch isset vnd trincket vom meynem blut/ der bleybet ynn myr/vñ ich ynn yhm/wie mich gesand hat der lebendige vatter/vnd ich lebe vmb des vatters willen/Also der von myr isset/der selbe wirt auch leben vmb meynen willen/Dis ist das brod/ das vom hymel komen ist/Nicht wie ewre veter haben hymel brod gessen/vnd sind gestorben/wer von disem brod isset/der wirt leben ynn ewigkeyt.

Dis Capitel redet nit vom sacrament des brods vnnd weyns/sondern vom geystlichen essen/das ist/gleuben das Christus Gott vnnd mensch seyn blutt fur vns gossen hatt.

Solchs saget er ynn der schule/da er lerete zu Capernaū/Viel ausseyner iunger/die das horten/sprachen/das ist eyn harte rede/wer kan sie horen? Da Jhesus aber bey sich selbs merckt/das seyne iunger daruber murreten/sprach er zu yhn/Ergert euch das? wie? wenn yhr denn sehen werdet des menschen son auff faren da hyn/da er vor war? Der geyst ists/ö do lebendig macht/das fleysch ist keyn nutz/ Die wort die ich rede/die sind geyst vñ sind leben/aber es sind etlich vnter euch/die glawben nicht/denn Jhesus wuste von anfang wol/ welche nicht glewbend waren/vnd welcher yhn verrathen wurde/vñ er sprach/darumb hab ich euch gesaget/Niemant kan zu myr komē/ es sey yhm denn von meynem vatter geben.

(wie)
Ergert euch das ich itzt rede auff erden/was will denn werden wenn ich vom hymel regirn werde/vnnd die wort volfuren vnd dieyn greyffē wer de?

Von dem an giengen seyner iunger viel hynder sich/vnd wandelten fort nit mehr mit yhm/da sprach Jhesus zu den zwelffen/wolt yhr auch weg gehen? Da antwort Simon Petrus/Herre/wo hyn sollen wyr gehen? du hast wort des ewigen lebens/vñ wyr haben gleubt vnd erkandt/das du bist Christus der son des lebendigen Gottis/Jhesus antwort yhn/Hab ich nicht zwelffe erwelet? vnnd ewer eyner ist eyn teuffel/Er redet aber vō dem Juda Simon Jscharioth der selb verrhiet yhn hernach/vnd war der zwelffen eyner.

Das siebend

출처: http://resolver.staatsbibliothek-berlin.de/SBB000I467E000000153

"계명"이 은혜를 통한 이신칭의의 메시지와 충돌을 빚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루터는 바울의 글에서 발견한 은혜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안에도 존재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와 자유의지 및 구원에 대해서 논쟁하기 몇 년 전에, 그는 "계명"을 잘못된 의미로 읽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시 다음을 보자.

본문	주해
요한복음 14:2-3[30] 나의 아버지 집에 거주할 곳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말하지 않았겠느냐?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한다면, 나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갈 것이다.	거주지는 영원으로부터 마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준비하시거나 준비하러 가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한, 거처는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아니다. 거처 자체가 준비되어 있어도 말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요한복음의 수사학적 형태이다. 이 본문은 영원과 종말에 대한 고전적 사고에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 주해에 대해서, 루터는 독자들에게 본문을 그 분명한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가 성경의 더 깊고 본래적인 메시지라고 믿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 루터의 번역을 그의 신학적인 전망과 분리할 수는 없다. 이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경은 주석가의 고백의 방향에 따라 줄곧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이에 동의하는 독자라면 이것을 정당하다(지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만)고 보고, 마땅히 성경을 일관되고 통일된 실체로 읽을 것이다. 반면 1520년대 이래로 비평가들은 루터가 성경을 왜곡하고 손상한다고 비난하곤 했다.

4. 루터의 번역과 코베르거 성경(1483년)의 비교

"번역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루터는 성경 번역이 일상생활 언어의 리듬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가정의 어머니, 길거리의 어린이, 시장의 평범한 남자에게 이 리듬에 대해서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입, 그들의 언어와 말하는 방식을 주목한 채 번역을 해야 한다."[31] 이 언급

30) Ibid.

31) J. Pelikan and H. T. Lehmann, eds.,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35:189; E. Cameron,

은 물론 로마서 3:28에 '오직'(*allein*)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꺼낸 말이다. 그러나 루터의 1522년 번역과 코베르거의 1483년 번역을 비교하면, 루터의 독일어가 가장 유려한 이전 역본보다도 더 매끄럽고 자연스러우며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된다. 루터가 사용한 말의 더 흥미로운 특징은 아래에서 논의될 것이다.

본 소론을 초기 근대 독일어로 된 사례의 범벅으로 만들지 말고, 독자들에게 몇몇 주요 단락을 직접 비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곧 루터가 불가타역을 따르지 않고, 그리하여 코베르거 역본과도 달라진 곳을 비교하는 것이다. 문학적, 극적인 효과가 고조된 것으로 보이는 본문은 다음과 같다.

-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증언
-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의 대화
-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일
-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교
-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가 말한 "우리가 누구에게 갈까"라는 말
-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설교
-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가 말씀하신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라는 설교

그러나 이곳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토대로 번역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 둘 중 어떤 경우에도 코베르거의 독일어가 거칠거나 품위가 없거나 한 것은 아니다. 단지 루터의 문체의 미묘한 차이가, 그가 글을 쓸 때마다 드러난다는 것뿐이다. 첫 사례는 요한복음 3:5-8에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는 장면에서 선택한 것이다.

그리스어 본문	코베르거 1483, fol. 51lr-v	루터 1522, fol. 66v.
[5]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σοι,	Jhesus antwort. Werlich werlich sag ich dir. der	Jhesus antwort / warlich warlich / ich sage dyr / Es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e Annotated Luther 6, 30; 비교 A. J. Niggemann, "Martin Luther's Use of Blended Hebrew and German Idiom in His Translation of the Hebrew Bibl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3:4 (2020), 483-497; A. J. Niggemann, "The Role of Lexical Collocation in Luther's Translation of עָמַל (*ʿĀMĀL*) in Eccl. 1:3",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NS 72:1 (2021), 19-43.

그리스어 본문	코베르거 1483, fol. 51lr-v	루터 1522, fol. 66v.
ἐὰν μή τις γεννηθῇ ἐξ ὕδατος καὶ πνεύματος, οὐ δύναται εἰσελθεῖν εἰς τὴν βασιλείαν τοῦ θεοῦ. [6]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ῆς σαρκὸς σάρξ ἐστιν, καὶ τὸ γεγεννημένον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πνεῦμά ἐστιν. [7]μὴ θαυμάσῃς ὅτι εἶπόν σοι, Δεῖ ὑμᾶς γεννηθῆναι ἄνωθεν. [8]τὸ πνεῦμα ὅπου θέλει πνεῖ, καὶ τὴν φωνὴν αὐτοῦ ἀκούεις, ἀλλ᾽ οὐκ οἶδας πόθεν ἔρχεται καὶ ποῦ ὑπάγει· οὕτως ἐστὶν πᾶς ὁ γεγεννημένος ἐκ τοῦ πνεύματος.	nicht anderwayd wirt geborn auser den wasser. Und auser den heyligen geyst. Der mag nit eyngeen in das reych gots. Das vom fleysch ist geborn. das ist der leib. und das vom geyst ist geborn dz ist der geyst. Nicht wunder dich das ich dir hab gesaget. Ir müsset anderwayd geborn warden. Wa der geyst willet da geyst er. Und du hoerest sein stymm. aber du wayst nicht von wann er kumpt. oder wa er hin gee. Also ist ein yeglicher der von geist geborn.	sey denn / das yemant geporn werde aus dem wasser und geyst / der kann nit ynn das reych Gottis komen / Was von fleysch geporn wirt / das ist fleysch / und was vom geyst geporn wirt / dz ist geyst / Las dichs nit wundern das ich dyr gesagt habe / yhr musset von newen geporn werden / Der wind bleset wo er will / und du horest seyn hauchen wol / aber du weyst nicht von wannen er kompt / und wo hyn er feret / Alszo ist eyn iglicher / der aus dem geyst geporn ist

루터가 πνεῦμα를 영(*Geist*)과 "바람"으로 구분하여 번역한 것은, 코베르거가 더 직역한 역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이다. 사실 그리스어에서 발견되는 이 단어의 애매모호함은 아마도 복음서 안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일 것이다. 루터가 "거듭나다"를 *von newen geporn*으로 옮긴 것은 코베르거의 *anderwayd geborn*와 어구의 의미는 똑같은 것이라도, 더 매끄럽게 읽힌다.

루터의 문학적 기법 중 더 놀라운 사례는 요한복음 13:1에서 예수의 고별 연설의 도입부 번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어 본문	코베르거 1483, fol. 517v.	루터 1522, fol. 76r.
... εἰδὼς ὁ Ἰησοῦς ὅτι ἦλθεν αὐτοῦ ἡ ὥρα ἵνα μεταβῇ ἐκ τοῦ κόμου τούτου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ἀγαπήσας τοὺς ἰδίους τοὺς ἐν τῷ κόσμῳ, εἰς τέλος ἠγάπησεν αὐτούς.	... ihesus west das sein stund was kumen das er sold geen von diser welt du zen vater. Da er het lieb gehabt die seinen dy da waren in der welt untz an das ende het er sye lieb	... Jhesus erkennet, des seyne zeyt kommen war, das er aus diser wellt zoge zum vatter: wie er hatte geliebet die seynen, die ynn der wellt waren, so liebet er sie ans Ende ...

루터의 단어 배열에서 중요한 변화는, "끝"(Ende)이라는 단어를 문장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다. 이는 그리스어 원문이나 불가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루터의 언어적 리듬감에서 유래한다. 루터역의 어순을 윌리엄 틴데일(W. Tyndale)이나 제네바 성경 역시 따르지 않았지만,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에서야 채택된 것은 시사적이다. 킹 제임스 성경의 선택은 이후 해당 번역의 전통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Having loved his own which were in the world, he loved them unto the end." 외적인 증거는 없지만, 킹 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청각체를 고려하며 번역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특별한 어감을 살린 것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임을 암시한다.[32]

루터역과 코베르거역의 또 다른 차이점은, 전자가 일반적으로 라틴어에 뿌리를 둔 표현 방식을 피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불가타역에서 유래하는 번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다. 코베르거는 요한복음 1:14의 δόξα/gloria(칠십인역에서 כבוד의 번역으로 채용된 것)를 그대로 *glori*로 옮겼다(2:11; 11:40; 12:41; 17:22, 24도 그렇다). 바로 *glori*를 독일어처럼 취급한 것이다. 루터는 이를 *Herrlichkeit*(영광)로 번역했다. 거리의 단위인 *stadia*가 불가타와 코베르거 역본에서 쓰인 데 반해, 루터는 요한복음 6:19와 11:8에서 이를 *feld wegs*("들판의 폭[또는 길이]" 정도의 의미)로 옮겼다. 요한복음 9:7에서 루터는 실로암 연못(*teych*)이라고 적는데, 아마도 에라스무스의 *piscina*를 따른 것 같다. 코베르거는 불가타의 역어 *natatoria*를 번역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데, 이 라틴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헤엄칠 곳"이다. 예수는 요한복음 9:22; 12:42; 16:2에서 그의 추종자들이 회당 밖으로 쫓

32) 비교 D. Norton, *The King James Bible: A Short History from Tyndale to To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101.

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루터는 여기에서 '추방'(*Bann*)이라는 아주 강한 독일어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그가 한 해 전 제국으로부터 쫓기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의미를 실감했던 것이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1:47, 57; 12:10; 18:3, 10과 그 외의 곳에서, 루터는 οἱ ἀρχιερεῖς를 *hoher priester*(대제사장)로 번역했다. 반면 불가타역은 *pontifex*로, 코베르거는 다소 이상한 *Bischoff*(주교, 감독)로 옮겼다. 요한의 수난 기사에서 불가타, 에라스무스, 코베르거가 요한복음 19:13에서 *lithostrotos*(돌길), 19:17에서 *Calvaria*(해골의 장소)라는 역어를 택했는데, 루터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독일어 단어 *pflaster*와 *Scheddelstet*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이런 성향에도 가끔 예외는 있었다. 이것은 루터가 모든 경우에 자신의 일반적인 의도에 부합될 것 같은 단어를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요한복음 1:21과 다른 곳에서, 루터는 코베르거의 *weyssag* 대신 *prophet*를 택했고, 코베르거가 *Lob sey den sun David*라고 번역한 요한복음 12:13에서 간단히 *Hosianna*라는 역어를 사용했다.

루터는 불가타의 번역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 반면 코베르거가 에라스무스의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를 선택했을 때 그는 대체로 이 불가타역을 따랐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단어 선택을 보면, 그가 번역할 때 에라스무스의 역본을 목전에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28에서 세례 요한은 전통적인 지명 베다니가 아니라 베타바라(에라스무스의 단어)에서 세례를 주었던 것으로 보도된다. 1:42에서 게바는 *fels*(바위)로 번역되었다. 이는 전통적인 *Petros/Petrus*가 아니라 에라스무스의 *lapis*를 따른 것이다. 친숙한 인명을 피함으로써 시몬 베드로의 반석과 같은 지위가 강조된 셈이다. 2:12에서 루터가 *Capernaum*(가버나움)을 적은 것은, 불가타나 코베르거의 번역에서 발견되는 *Capharnaum*이 아니라 에라스무스를 따라 그리한 것이다. 5:2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따라 *Bethseda*(벳세다)의 연못을 언급하는데, 불가타와 코베르거에는 *Bethsaida*로 되어 있다. 사람 이름의 형태이지만 에라스무스는 요한복음 12:20의 '헬라인'을 *Graeci*로 번역했다. 이 장면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몇몇 *gentiles*(이방인, 불가타) 혹은 *heyden*(이방인, 코베르거)이 예수를 뵙고자 했다. 루터는 이 *Graeci*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에라스무스의 다른 판본을 따라 *kriechen* 또는 *Griechen*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시금 몇 가지 예외가 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방문한 이야기(3:3, 7)에서, 루터는 ἄνωθεν을 *von newen*, 즉 "새로 (태어나다)"로 번역한다. 여기에서 그는 에라스무스의 *e supernis*(위로부터)가 아니라 불가타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물론 ἄνωθεν의 번역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

다음의 몇 사례는 루터가 1522년 이래로 어떻게 번역 작업을 수행했는지를 보여 준다. 그는 역동적이고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자 했으나 결코 자신의 선택을 정경처럼 절대화하거나 어떤 변경도 용납하지 않는 화석화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루터는 요한의 신학에서 반복되는 핵심 동사 δοξάζω(영광 돌리다)를 다른 두 단어로 옮겼다. 그는 *preysen*, 즉 영어 "praise"의 동계어를 12:28; 16:14; 그리고 21:19에서 사용했다. 그런데 1545년 판에서 처음 두 구절은 고치지 않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verklären*(변화하다)으로 바꿨다. 한편 그는 이미 1522년 판에서 *verkleren*을 13:32; 17:1에서 사용했던 바 있다(*ä/ae*와 *e*는 기본적으로 같은 모음이다). 루터는 다른 곳에서 번역문의 의미를 더 강화하기도 한다. 1545년 개정판의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기사(요 8:9)에서 루터는 *von ihrem Gewissen überführt*(그들의 양심의 고발을 받아)라는 묘사를 여인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덧붙였다. 그들은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자 발뺌을 하려던 사람들이었다. 요한복음 11:35에서 루터는 "예수께서 우셨다"를 *Jhesu giengen die augen uber*(문자적으로 "그의 눈이 [눈물로] 넘쳤다")로 번역하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슬픔을 묘사했다. 루터는 다른 유명한 구절, 곧 19:5의 Ἰδοὺ ὁ ἄνθρωπος 즉 *Ecce homo*("그 사람을 보라")를 *Sehet welch ein Mensch*([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라!)로 번역하였다. 이 어구는 크리스토프 그라우프너(C. Graupner, 1683-1760)가 작곡한 고난주간 칸타타의 제목이 되었다("*Sehet welch ein Mensch*", GWV 1127/16). 때때로 루터는 다른 극적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번역문을 늘리기보다는 압축하기도 했다. 14:15에서 그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이례적으로 간결하게 처리했다. *Liebet yhr mich, so haltet meyne Gepott* (코베르거의 역문 *Ob ir mich lieb habt so behut mein gebot*과 비교하라). 20장의 부활 이후 나타나신 장면에서(19, 21, 26절), 예수는 제자들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신다. 1522년 판에는 강렬한 명령형 인사말 *habt fride*(문자적으로는 "평안을 가지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545년 판에서는 좀 더 친숙한 직역 *Friede sei mit euch!*("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로 개정되었다.

5. 결론

루터는 자신의 번역을 다양하지만 항상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평가했다.

그는 그 번역에 대해서 때때로 자신 없고 때로는 과할 만큼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루터가 1522년 번역이나 1534년까지 내놓은 다른 성경 번역을 "정경처럼 절대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개정된 본문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역어의 선택을 손봤다. 그러나 루터 성경의 여러 판본이 출간되었지만, 그중 일부는 직접 감수하지도 않았고, 특정 역본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모든 판본이 각각 그만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으며, 또 모든 판본이 반드시 출간 당시 루터의 번역에 따른 선택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었다.

둘째, 일반 백성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그로부터 배우며, 그를 본떠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루터의 주장은 그의 번역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언어적 특성이 번역 환경에 따라 특정 경향성을 보이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루터의 번역에는, 불가타의 이전 번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힘이 느껴진다. 몇몇 경우에, 가령 "주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번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루터는 대중의 언어를 단순히 모사(模寫)하는 것을 넘어 수사학적으로 강력한 효과를 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만하다. 동시에, 그리스어 신약성경이 권위 있는 주요 텍스트라 할지라도 라틴어 성경의 흔적이 도처에서 발견된다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 루터처럼 16세기 초 수도원과 사제들로 둘러싸인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불가타역의 영향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에라스무스의 불가타 개정본은 중요한 구절에서 루터의 번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문과 본문이 낳은 의미 사이의 관계는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주제로 다가온다. 루터의 번역과 그의 신학적 논제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관계였다. 루터는 수년간 성경 본문과 세심하게, 그러나 때때로 고통스럽게 씨름한 후에야 명확한 그의 신학적 입장에 도달할 수 있었다. 반대로 대략 1518-1521년 어간의 신학적인 저작을 통해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후, 루터의 그 결론은 그의 번역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루터 연구가가 지적했듯이, "순환하는 영향"(feedback loop)을 주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 곧 루터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성서적이지만, 어떤 메시지를 성경에서 발견한 후 이를 토대로 성경 전체의 번역에 적용하였다.[33] 그의 성경 번역은, 특별히 그가 남긴 여러 주해와 함께, 칭의의 핵심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9월 성경>은 그보다 앞서 3년간 논란을 일으켰던

33) E. Cameron, e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442-445.

신학 저작의 확장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단지' 번역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런 사실은 종교개혁 초기 몇 년간의 전형적인 현상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덜 전형적인 것이 되었다. 북부 및 중부 독일과 스칸디나비아의 초기 종교개혁 운동에 있어 루터는 주도적으로 신학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자인 동시에 성경 번역가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자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분과는 점차 분화하게 되었고, 결국 성서학자는 더 이상 성경 본문이 반드시 자신의 고백에 권위를 실어주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이 과정은 1522년에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뤄진 일이다. 루터에게 성경과 신학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

<주제어>(Keywords)
<9월 성경>, 독일어 성경, 마틴 루터, 요한복음, 안톤 코베르거, 에라스무스.
September Testament, German Bible, Martin Luther, Gospel of John, Anton Koberger, Erasmus.

(투고 일자: 2023년 10월 31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Biblia, Strasbourg: Johann Mentelin, 1466, http://www.digitale-sammlungen.de/en/view/bsb00036981.

Biblia Germanica, Nuremberg: Anton Kobergerm, 1483, https://archive.org/details/Coberger_Biblia-Germanica_1483/page/n2/mode/1up.

Brecht, M., *Martin Luther*, 3 vols., J. L. Schaaf, trans., Minneapolis: Fortress, 1985-1993.

Burnett, A. N., *Debating the Sacraments: Print and Authority in the Early Reform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Burnett, A. N., *Karlstadt and the Origins of the Eucharistic Controversy: A Study in the Circulation of Ide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Cameron, E.,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he Annotated Luther 6*, Minneapolis: Fortress, 2017.

Cameron, E., ed., *The New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1450-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Erasmus, D., ed., *Novum Testamentum omne*, Basel: Johan Froben, 1519.

Flood, J. L., "Martin Luther's Bible Translation in Its German and European Context", R. Griffiths, ed., *The Bible in the Renaissance: Essays on Biblical Commentary and Translation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Aldershot: Ashgate, 2001, 45-70.

Florer, W. W., *Luther's Use of the Pre-Lutheran Versions of the Bible (Article 1)*, Ann Arbor: George Wahr, 1912.

Gritsch, E. W., "Luther als Bible Translator", D. K. McKim,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tin Luth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62-72.

Kaufmann, T., *Luther's Jews: A Journey into Anti-Semitism*, L. Sharp and J. Noakes, tra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Luther, M., *Das Newe Testament Deutzsch*, Wittenberg: Melchior Lotter for Lucas Cranach and Christian Döring, 1522; Facsimile reprint: Berlin: Grote, 1883.

Luther, M., *Luther's Works, American Edition*, J. Pelikan and H. T. Lehmann, eds., 55 vol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Philadelphia: Fortress, 1955-1986.

Luther, M.,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58 vols., plus indexes [many vols. subdivided], Weimar: Böhlaus, 1883-1948.

Niggemann, A. J., "Martin Luther's Use of Blended Hebrew and German Idiom in

His Translation of the Hebrew Bible", *Harvard Theological Review* 113:4 (2020), 483-497.

Niggemann, A. J., "The Role of Lexical Collocation in Luther's Translation of עָמַל (*ʿĀMĀL*) in Eccl. 1:3",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NS 72:1 (2021), 19-43.

Norton, D., *The King James Bible: A Short History from Tyndale to Toda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Textus Biblie, *Textus Biblie cum glosa ordinaria: Nicolai de Lyra postilla, moralitati bus eiusdem, Pauli Burgensis additionibus, Matthie Thoring replicis*. 7 vol s. Basel: Petri and Froben, 1506-1508, https://digital.staatsbibliothek-berli n.de/suche?queryString=PPN789418835.

<초록>

<9월 성경>과 이전 역본들
— 루터의 신약 번역은 이전 독일어 역본과 어떻게 다른가? —

루터의 첫 번째 신약성경 독일어 역본은 1522년 9월 출간되었다. 이 번역은 성경 번역사에 이정표를 놓았다. 그러나 루터의 번역은 당대 성서학의 성과 및 이전 독일어 번역본과 정확히 어떤 점에서 다른가? 또 어떤 점에서 이를 계승하는가? 본 논문은 <9월 성경>의 요한복음을 안톤 코베르거의 1483년 독일어 성경 및 에라스무스의 1519년 그리스어/라틴어 신약성경과 비교하고자 한다. 루터의 1522년 역본은 그 체제에 있어 이전 번역과는 다르다. 루터는 제롬의 서문 대신 자기의 것을 넣었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설과 단락 구분을 덧붙였다. 코베르거의 역본과 비교하자면, 루터의 의중은 더 매끄럽고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는 라틴어의 흔적을 자신의 독일어 번역에 남기는 것을 피하고 수사학적으로 힘이 넘치는 독일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언어적인 색채를 수용하되, 비평적으로 받아들였다. 루터는 줄곧 그의 독일어 신약성경 역본이 복음의 본질을 구현하도록 애썼다.